"故 오승윤씨 자살 이르게 한 책임 있다"

화랑 대표 징역형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지난해 자살한 중견화가 오승윤씨의 유족 고소에 따라 재판을 받던 경기도 Y화랑 대표가 13일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단독 장경식판사는 이날 횡령·협박·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화랑 대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피고의 행위가 오씨의 자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씨의 충격적 자살 직후 추측으로만 나돌던 자살 동기는 오씨가 당시 전시회를 앞두고 Y화랑과 맺은 계약의 차질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지고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과 그동안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정황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오씨로부터 작품 33점을 건네받은 Y 화랑측이 화집출간과 전시회 개최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일관, 상심한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해 3월 Y화랑대표 전씨를 고소했었다.

유족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 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물론 심한 환청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것이다.

당초 Y화랑은 오씨와 작품 33점으로 판화를 제작한 뒤 판화에 대한 저작권료 1억여원으로 화집을 출간하겠다고 계약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오씨의 딸 수경씨는 "이번 재판결과는 억울하게 숨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故 오승윤씨 유작 33점 돌려받을 가능성 커졌다

법원이 고 오승윤씨 관련 형사재판에서 화랑대표를 법정구속 함에 따라 오씨가 타계 직전까지 제작한 유작 33점이 유족들의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중인 작품 반환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인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씨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엄상익 변호사는 "이미 재판부가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적극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14일 곧바로 작품 반환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

현재 Y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오씨가 전통색인 오방정색(五方正色)을 바탕으로 제작한 '풍수(風水) 시리즈' 33점이다. 또 이를 토대로 Y화랑 측이 제작한 판화 수백점도 포함돼 있다.

'魚', '山山', '산과 마을' 등 Y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오화백의 원숙미를 보여주는 것들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타계 전까지 제작한 신작이다. 작품 규모는 10호에서 50호까지 다양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故 오승윤씨의 유작 '풍수'

국고보조금 1억7,700만원 횡령

'빈들회' 대표 목사 기소

공사대금 20억 사기도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3일 자치단체 보조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광주지역 노인 무료급식단체인 '빈들회' 대표 김모(57) 목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1년 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광주 남구청에서 지급된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7억1천150만원 중 1억7천7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또 지난해 2월 건축업자 김모씨에게 "광주시와 남구청으로부터 복지관 건축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속인 뒤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공사대금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단체는 1996년부터 남구청으로부터 매년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최근 6년 동안 후원계좌 13개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6억1천여만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빈들회'는 1987년부터 20여년 동안 광주공원에서 '사랑의 쉼터'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 활동을 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노인 무료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절도혐의자 조사받고 자살

경찰 '강압 수사' 논란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4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용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정모(47·광주시 남구 백운동)씨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자신의 집 보일러실 기둥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형수 오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정씨를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당일도 정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왔으며 조사 뒤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의 유가족은 "정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겁이 많아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다"며 "강압수사도, 인권침해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지검 '보이스 피싱' 곤욕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전화송금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때문에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가짜 검찰'로 오해를 받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A수사관은 최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쪽 전화번호를 달라.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검찰인지 못 믿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한참을 설명해야 했다. B씨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뒤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대화에 응했다.

최근 들어 광주지검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10~3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검찰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면서 "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면 돼 굳이 청사로 불러 조사할 일이 아닌데도 정식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강종만 영광군수

징역 10년 구형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 1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16일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친척 지모(56)씨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자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진 S업체 지모(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50분에 광주지법 제2형사부(강신중 부장판사) 주관 아래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엽제 피해 인정해달라" 농성 고엽제 후유의증(疑症)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 60여명이 13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국가유공자 승격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보훈청장실을 점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훈청은 고엽제 피해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채 빚 갚기위해 빈집털이 '덜미'

쌍나팔

○…사채 빚을 갚지 못한 20대 남성이 빚을 갚기 위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경찰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 D증권 직원 배모(28·제주시 노형동)씨는 사촌동생과 함께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이모(여·25)씨의 집에 침입, 베르사체(Versace)시계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증권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의 빚을 지자 사채를 끌어다 사용했는데, 이를 감당할 길이 없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배씨는 경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럽다"며 "부모님과 사촌동생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때늦은 후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